

중국 타이어 시장 경쟁 가속화

KOTRA 大連 한국무역관

중국 타이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외자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생산비용 절감효과를 꾀하고 있어 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에는 세계 10대 타이어 생산업체 중 9개사가 투자해 현지 생산을 하고 있다. Michelin은 상하이에 투자를 확대해 자사 최대의 생산기지로 육성하고 중국에 100개의 소매 판매점을 설립할 계획이고 Goodyear는 다롄(대연)공장에 1억2천만달러를 투자한 바 있고 생산능력을 연간 530만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Bridgestone은 텐진(천을)공장에 10억엔을 투자해 연간 생산능력을 500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세계 최대의 타이어 생산업체들이 중국 공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원인은 중국의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타이어 산업도 사양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래디알 타이어 보급률이 90%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35% 가량에 불과하여 잠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자기업들은 중국 시장 공략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 확대에 따라 타이어에 대한 수요는 함께 늘고 있다. 03년 자동차 444만대를 생산한 중국은 05년에는 5백만대를 생산할 것으로 보이며, 02년 3,500만개를 기록했던 중국의 타이어 수출은 03년 4,500만

개를 기록했고 생산량은 1억 4천만개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05년에는 중국의 타이어 생산량이 1억6천만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04년 중국 정부는 타이어 수입쿼터허가증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결과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텐진항을 통해 수입된 상용차 및 화물차용 타이어는 2만 4,000개로 수입액은 63만 3,000달러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110% 및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주로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로부터 상용차 및 화물차 타이어를 수입하며 소형 상용차용 타이어가 2만 3,000개에 달해 전체 수입의 94.2%를 차지했다. 수입 가격도 대폭 하락했는데, 작년에 개당 47.6달러에서 45.7%나 하락한 25.9달러에 수입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과열 양상을 띠는 일부 산업에 대해 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기 연착륙에 성공해 향후 경제가 안정되면 자동차 산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규 업체의 자동차 산업 진입 요건을 강화해 최소 투자액을 20억위안 이상으로 규정해 경쟁력 있는 대형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타이어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품질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재 : KOTRA 홈페이지 '무역투자정보'>